

새로운 도약을 위한 약속 : 센서뷰가 더 단단해진 발걸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서뷰 대표이사 김병남입니다. 꽃들이 만개하는 4월, 따스한 봄기운이 완연하지만 저희 센서뷰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주주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는 작지 않은 우려와 걱정이 자리 잡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대표이사로서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동시에 우리 센서뷰가 마주한 새로운 전환점에 대해 솔직하고 따뜻한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고통 분담과 준비의 시간

잘 아시다시피, 센서뷰는 오는 4월 무상감자와 함께 이에 따른 약 한 달 간의 주식 거래정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잠시 멈춘다는 것이 주주님들께 얼마나 큰 답답함과 불안으로 다가올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무상감자 결정은 단순히 재무 수치를 조정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는 과거의 무거운 짐을 털어내고, 센서뷰가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경영 정상화'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이 한 달의 시간은, 센서뷰가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 활주로를 단단히 다지는 시간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 지난 1년, 성장의 씨앗이 '수주와 매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센서뷰는 지난 1년간 기술 성과를 실제 사업 성과로 연결해 왔습니다. 특히 방산 분야에서는 수주 확대와 양산 전환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매출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중동향 지대공방호체계 연결솔루션, 장사정포요격체계 레이다용 안테나, 항공용 안테나 및 케이블 조립체 공급 등 주요 프로젝트가 매출로 이어지며 실적 개선을 견인했습니다.

또한 UH-60 헬기 성능개량 사업에 참여하여 항공용 안테나 2종 개발 계약을 수주하고, M-SAM Block-III 레이다 체계개발 관련 신규 프로젝트를 확보하는 등 수주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반복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양자컴퓨팅 등 신규 산업에서도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AEC 케이블과 극저온 케이블은 현재 국내 대기업 고객사 대상 샘플 공급 및 기술 검증을 진행 중이며, 중장기 성장 기반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과거 미국 우주항공 관련 기업 납품 이력을 기반으로 다수의 기업과 협력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ETRI가 주관하는 정부과제를 통해 6G 위성 통신 시스템의 수신체 개발을 담당할 예정으로,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3. 2026년, '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센서뷰는 지금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재무 구조 개선을 통해 체질을 개선한 센서뷰는 이제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에 집중할 것입니다.

지난 1년간 확대된 방산 수주와 양산 전환 흐름은 올해부터 실질적인 매출과 손익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를 더해, 주주 여러분께 보다 명확한 실적 개선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센서뷰가 단순히 기술력이 좋은 기업을 넘어, 시장에서 성과로 증명하는 기업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4. 주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센서뷰를 믿고 기다려주신 주주 여러분, 대표이사인 저는 매일 아침 주주님들의 소중한 자산과 신뢰를 생각하며 집무실에 들어섭니다. 때로는 매서운 질책을, 때로는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그 마음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거래정지 기간 동안 저희 임직원 모두는 현장에서 땀 흘리며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주님들께서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라고 웃으며 말씀하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센서뷰의 진정한 가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진심을 믿고,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6일 센서뷰 대표이사

김병남 올림

